

## 飛 龍 池

### 이 창 근

(중앙도서관 서무과장)

해방 후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계속 봉직한 곳이 서울대학교다. 내가 이번 처음으로 飛龍池(용이 되어 나르는 못)에 부임한것은 지난 9월, 이 곳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 飛龍池에 대한 나의 생각과 飛龍池라고 한 뜻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 글을 쓰기로 했다. 飛龍池란 곳은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뒤 적어도 4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매일같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으며 혹은 이못(池)에서 즐기고 있는 곳이다. 서울대학교 내에 용이 되서 나르는 연못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하고 제군은 궁금히 생각할 것이다. 그 못은 다른 곳이 아니라 中央圖書館을 가리켜 본인이 명명한 이름이다. 왜 도서관을 飛龍池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키로 하자. 동서를 통해 대학의 심장부 하면 도

서관을 가리킨 代名詞로 되어 있음을 제군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심장은 활용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활용해 주는만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강력한 활소를 그 상대방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재학시절 즉 4년 이상의 세월을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장 쉽고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비약하는 “힘”을 넣어주고 또 그 힘을 축적해주는 곳이 바로 도서관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군은 卒業하고 社會에 進出하면 참으로 書籍과 親해 질 수 있는 時間과 與件이 學生時節을 지나면 거의 가질 수 없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도서관에 부임후 놀란 것은, 閱覽室의 座席이 없어 利用할 수 없을 程度로 많은 學生이 利用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와는 反對인 現象에 놀란 것이다. 그는 좌석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이다.

歐美各國의 大學生들은 在學中 最少限 2千卷에 達하는 書籍을 讀破해야 한다 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 大學生들은 어

67 學年度 圖書被學生 閱覽狀況表

閱覽席數	開館日數	閱覽者年累計	一日平均閱覽者數	閱覽圖書數
2714	3637	209,054	58	247,608

註: 本表는 서울大學校 年報 第7輯(1968. 4. 1 現在)에서 발췌한 것이며 中央圖書館과 12個 分館을 合한 것이다.

開館日數는 各 分館에 따라 다르나 中央도서관은 年 319 日을 開館하고 있다. 最高閱覽者數는 醫大도서관이 年平均 254 名 最小는 美大·齒大 도서관이 9 名으로 되어 있다. 閱覽도서 數도 醫大도서관이 77,122 卷으로 最高이고 齒大·美大 2077 卷이다.

며한가.

서울大學校 統計集에서 나타난 67年度 圖書館 學生閱覽 狀況表를 살펴보기로 하자.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大學校에는 附屬中央도서관 및 各 大學에 있는 分館을 合하여 學生閱覽席數는 2,714 席이 있다. 이를 서울大學校 學生 定員에 比하면 約 5 名이 1 席끝이 되는 셈이다. 表에서 나타난 도서관 利用者 數는 1日 平均閱覽者數가(1 年을 통이 각 도서관 開館日數로 分한것) 겨우 58 名으로 되어 있고 閱覽도서數는 247,608 卷으로 되어 있다. 閱覽도서數를 在學生數로 나누어 보면 1 年間 한學生이 본 책數는 25.7 卷이 된다. 이 數字를 4 곱해 보면 서울大學校學生들이 在學時節에 읽은 책의 數는 百卷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4 年間 大學生活에서 본 책이 100 卷 밖에 보지 않았다는 結論이 된다. 歐美各國의 大學生들이 보는 책이 2 千卷이라면 그 折半인 千卷程度의 책을 읽는 大學生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 서울大學校 學生들만은 歐美 어느나라 大學生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社會人士에게 자랑해온 나로서는 섭섭하기 限이 없는 統計인 것이다.

우리 大學生들의 實情은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도 寒心스럽다.

왜 여러분은 飛龍池 밖에서 놀고 몸소 이 못(池)에 들어오지 않을까.

飛龍池 이 못(池)이야 말로 여러분들

이 등용될 수 있는 곳ियो 그 힘을 키워 주는 곳이다. 이런 點에서 나는 도서관을 가리켜 용이 되어 나를 수 있는 못(池)이라고 부른 것이다.

끝으로 現中央도서관이 서 있는 곳은 서울大學校 前身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때 처음 세워진 建物로서, 이곳은 우거진 洛山(現在 骨石만 있는 판자村山이 아 니고)에서 흐르는 玉水가 담겨 있는 연못 자리며, 이곳에 이르자면 凝鑿橋注라는 다리를 건너야 했고, 그 當時 다리가 놓였든 곳을 紀念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碑石이 現在도 있음을 여러분들은 살펴 주시기 바란다.

## 길 빨리 채리소서

韓 祐 勛

(서울 문리대 교수)

자기가 所藏하고 있는 書冊중의 어느 것에는 유달리 지난 날의 애꿎은 사연이나 즐거웠던 追憶이, 혹은 또 感激했던 興奮같은 것이 깃들여 있을 수가 많다. 그럼으로 사람에게 따라서는 藏書가 무엇보다도 더 所重하게 여겨지는 所以는 단지 冊數가 많다던가 稀貴本이 섞여 있다는 때문만이 아닐게다. 그것은 자신의 生의 遍歷을 말하여 주기도 하는 이를테면 精神的인 同伴者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다.

解放前 大學生시절에 모아 간직했던 冊

注：“大學正門에서 中央도서관으로 오면 도서관 건물 바로 옆 느티나무와 개나리 나무 뒤에 이 비석”이 있다.

들은 나의 집의 族譜와 더불어 그대로 땡 개친채 越南했었다. 解放前 學生시절의 浪漫이나 思索의 흔적을 지금의 나의 書架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解放後 서울에서 근근히 주서 모은 冊도 거의 二·三百卷은 되었을지 모른다. 사변때 天井위에 숨겨 두었던 그것은 몽땅 行方不明이 되어 버렸다. 그럼으로 지금의 나의 書架에 꽂혀있는 冊들—藏書라고할 것도 못되는 冊들은 이를테면 늦게 再娶한 마누라처럼 나의 오랜 사연을 더불어 이야기 할 상대가 못된다.

그러한 중에도 한가지 冊만은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사연이 깃들어 있는 것이 있다.

내가 李仁榮教授를 처음 뵈게된 것은 老學生으로 京城大學·史學科에 編入하게 되었던 解放後의 일이다. 李教授는 40未滿의 젊은 교수였고 나는 30이 넘은 老學生이었다. 그럼으로 正確히는 기억이 안나나 젊은 教授와 老學生의 年齡의 差異는 不過몇살에 지나지 않았다.

李교수는 解放後 韓國史 研究에 뜻을 둔 몇몇 學徒를 맞이하여 解放의 感激도 새롭게 신이나서 종와 했었다. 어떻게 해선지 以北에 두었던 教授의 藏書의 一部를 서울로 옮겨올 수도 있었다.

내가 어떤 날 李教授를 宅으로 訪問했을 때 이야기를 주고 받던 끝에 李教授는 두卷의 洋裝本을 내 보였다. 그리고는 뚜정을 열고 萬年筆로 몇줄의 글을 적는 것이었다.

아득했던 學問길  
내 겨우 알고보너  
길 저물듯  
님이야 春秋도

나보다 새로우니  
길 빨리 채리소서

1947年 春3月

그리고는 「이 책을 傳호매 鶴山은 一松齋中에서 한마디 부치노라」고 덧붙였다. 鶴山은 李仁榮교수의 雅號이며 一松齋는 그의 書齋名이었다. 李仁榮 교수의 평소의 표연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松鶴을 聯想케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두卷의 冊은 다름아닌 따레—의 韓國教會史였다. 내가 韓國天主敎史에 關한 研究에 關心이 있는 것을 본 李教授는 그의 秘藏의 藏書중에서, 겨우 一部分만을 옮겨올 수 있었던 얼마 안되는 藏書중에서 끄내어 老學生인 나에게 傳해준 것이었다. 그리고는 「길 빨리채리」라고 재촉해마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다른 學生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먹었던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李仁榮教授는 六·二五때 虛弱했던 몸으로 以北에로 拉致된 以後로 소식이 묘연할 따름이다. 인제 생각하면 先生이 이 冊을 나에게 傳한 것은 先生의 뜻을 나에게 傳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느덧 20年이란 歲月이 흘러갔다. 그러는 동안 나는 어지간히 길을 빨리 채리느라고 부시렸으나 이미 길이 저물어 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六·二五때 간직했던 冊들을 天井위에 쓸어 너면서 나는 이 冊 두卷만은 釜山에까지 끼고 내려갔었다. 지금 나의 書架위에 가즈런히 끼어있는 이 두卷의 冊만은 이렇듯 해서 깊이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로 學問의 길은 멀고도 아득하고 人生의 길은 歲月과 더불어 덧없는 것 같기만 하다.

# 酒道一言

金 鍾 轍

(중앙도서관 열람과 근무)

不可不 대포집과는 배어 놀래야 배어 놀 수 없는 것이 내 日課의 一部分인지 아니면 暇의 一部分인지 明確히 말해서 區分이 가지 아니한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어제 또 지독한 惡友(?) 와 어울려서 대포집 서 너 곳을 順訪하고 通禁 1, 2 分 直前에 집에 당도한 微熱이 남아 있으니 까 말이다.

巫黨이 곳을 하고 處女가 아이를 배도 自己 나름대로의 辯明을 가지듯이 술을 마시는데도 으레이 理由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 辯은 솔직히 말해서 自己의 비굴함을 은폐하기 위한 手段이지만) 어쨌든 理由는 理由니까 애교로 봐 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自意인지? 他意인지? 區分이 없는 그런대로 곧잘 대포집으로 달려든다. 小曰하고 그 本格的인 理由아닌 理由를 들추어 보자. 이래도 理由아닌 理由가 서지(成立) 않을 수 없으며 대포집의 出入이 正當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다.

無論하고 나도 家庭이 있고 子息이 있고 사랑스러운 마누라님이 없어서가 아니다. 또 남들이 하듯이 忠誠스러운 家長이 못 된다는 것이 아니다. 「신탄진」을 「백조」로 「커피」를 「菓茶」로 代身(用)한다면 40~50 원짜리의 「센베이」菓子 뿌시랭이를 줏어주고 퇴근후 곧장 歸家할수

도 있고 石頭같은 子息놈들의 學校宿題를 못봐준다는 것이 아니며 연탄값에 콩나물값에 子息놈들의 雜賦金에…… 해서 마누라 家計簿에 無條件 呼應하는 자랑스러운(?) 男便이 못된다는 것이 아니며, 위대한(?) 아빠가 못되서가 아니다.

택시로(아니면 自家用으로) 出退勤 못하는 末端 月給쟁이로서 고놈의 出勤簿에 지각 딱지 받기 무서워서 이른 새벽 빠스타기 作戰으로 始作해서 書類뭉치. 複寫뭉치, 되풀이만 되는 計劃書뭉치 해서 8~9 時間에 걸쳐서 精神을 몽땅 빼앗기고 나면 하늘이 노랗게 물드러오는 心身의 피로감과 삶의 終末을 向해서 무너져가는 희생의 허탈감이 退勤이라는 두 文字와 結付되어 人生전쟁터로부터의 패잔병 꼴이 되고보면 惡友들의 集團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대포집 以外에 別 뽕족한 方法이 있겠느냐 말이다. 어찌다가 억세게 運이 좋아 환영會니 送別會니 해서 더 많은 惡友들의 集團이 구성되는 날이면 辯明의 餘地조차 없다. 또 공술 에는 無條件이다.

「공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에 대해 一言 하지 않을 수 없다. 大多數의 惡友들은 공술로 自己 行爲를 모면하려고 한다. 쥐꼬리 만치도 못남은 月給봉투에서 대포집 마나님에게 또 給付하고서도 곧잘 호랑이같은 마누라님 앞에서 辯明하려고 드는것이 이 공술 이다. 惡友들의 10人中 8~9人이 호랑이 앞에서 공술를 마셨다고 허위를 피운다. 허구헌날 三百六十五日을 몽땅 공술로 通用하려고 하는것이 惡友들의 習性이다. 勿論 本人도 이에 準하는 惡友中 一分子이지만 아니 三尺童子라도 그만한 分別力은 있

을 것인데도 공술로만 通用하려고 하니 아마 惡友들의 思考方式이 三尺童子에 準하는 것인지 도모르겠다. (하기야 이쯤된 惡友님의 호랑이들도 感染되어 一言反應도 없다. 그래도 그 공술이 實存한다. 비대해진 대포집 마나님들의 푸념을 들어 보라치면 數도 없이 공술을 제공하여 왔다는 것이다. 못받은 外上술값이 卽 공술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대포집치고 궁한 집없으니까 진짜 공술=空酒(Alcohol 아닌 H<sub>2</sub>O)인지 하여튼 공술을 理由로 드는 惡友들의 習性이 있다. 慶祝이니 自祝이니 하는것은 窮地에 處해서 名分아닌 名分을 세우기 爲한 手段方法으로 곧잘 쓰이기도 하지만 生死의 分岐點에서 運命을 같이한 戰友라든가 아니면 소꿉親舊를 우연한 期會에서 만부딪치는 날이면 直行하는 곳이 대포집이요, 빼놓수 없는 것이 술타령이다. 기뻐서 한잔, 슬프다고 한잔, 기분나빠 한잔, 기분좋아서도 한잔. 이래서 累積되는 것이 365日 처놓고 日曜日, 국경일을 빼고난 大部分의 日課가 대포집과 結付되고 술과 내가 直結되어 人生終末을 向한 삶의 核이 연소되고 있는 형편이니 이래도 나와 내가 대포집과 分離될 수 있겠느냐 말이다.

또 술 自體에도 種類와 철에 따라서 유혹이 따른다. 나는 農村出身이라 洋酒보담 막걸리를 좋아한다. 구수한 빈대떡에 기름이 팽 도는 동동酒 한 쪼배기를 쪽 드리키는 맛이란 어찌 말로나 文字로서 表現할 손가? 제아무리 기름진 高官大爵들의 만찬이라도 이에 比較될 수 없는 것이 累積되어 오는 동안에 遺産된 副産物인지는 모르지만……

술을 마시는 여러가지 實習이 심심찬

다. 그 하나로 三, 七制니 해서 홀수로만 끝내는 것이 있다. 이는 肉體的으로 많은 無理가 간다. 두 잔으로 족할것을 無理加算해서 더 많은 量을 마셔야 하니까, 當하는 사람으로서 大端한 부담이겠지만 實行하는 동안 오고 가는 情談은 이루 말할 수 없게 比重이 肥大해진다. 이것이 크면 1次니 2次니 해서 通禁과 同行하게 되고 자칫하면 파출소 마루바닥을 신세지게 된다. 또 술레식이다. 無條件하고 自己차레의 술잔을 마셔야 하는것이다.

승부가 빨라 좋다. 애송이 하고는 재미가 없다. 너댓잔에 녹아 떠러져서 술 座席을 망치는 수가 왕왕있으니까. 本人도 여기에 KO當한 적이 있다. 지독한 黨首와 내 酒量을 測定해 불려고 意識的으로 도전해서 始發한것이 終末에는 술에 술이 취하고 술이 술을 마시고 끝내는 술에 먹혀본 쓰라린 業積이 있었지만 어쨌든 함께 亡(?)해 보자는 惡友들의 行動統一에는 그저 그만이다. 이에 反해 西歐式은 爲先 마담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여 준다. 自己 酒量껏 마시자는 西歐의 인 紳士方法이다. 初步者에게는 가장 원만한 道樂이지만 惡友들間에는 쉬 파악되는 것이 十中 八, 九이다.

술을 마시는 것이利落하다고 하는 사람은 惡友들속에도 드물다. 百害無益함이 明白한 데도 곧장 집으로 直行치 못하고 소굴에 빠지곤해서 비극을 數없이 되풀이하고 또 敵對視하면서도 계속하여 비애를 낳는다.

모든 世上哲學에 理由없이 反抗해 보는 말하자면 한 장의 新聞紙 뭉치를 구기고 구겨서 숨처럼 만들어 쓰레기통에 팽겨쳐 보는 희열 아니면 如何한 환경에도 如

何한 일에도 調化되고 順應하고 노예化하는 슬픔을 낳기 위해서, 아니라면 男子는 활을 들고 짐승사냥을 하고 女子는 동굴에서 男子를 기다렸다는 古代의 神話를 復活시키자는 目的意識에서가 아니라, 배를 타면 창을 들고 물고기를 나누어야만 되는 사냥습성이 그래도 男子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어있다는 것을 들추지 않더라도, 빠스타기 作戰으로 始作해서 지각면하기 서류뭉치, 복사뭉치, 계획서뭉치에 정신을 來日도 빼앗길려면 家庭의 家長이 되고 자랑스러운 夫君이 되고 위대한 學父兄이 되기 爲해서가 아니라도, 人生終末의 核하나까지 最後의 불꽃으로 산화시키기 위해서도 惡의 業蹟을 버리지 못함은, 아침 9時부터 始作해서 午後 6時에 끝나는 그일 自體가 그래도 이 社會와 結付되어 如何한 成果를 맺는다는데는 구원을 청할 수 있고 보람을 노길 수 있고 自己에게 부과된 의무와 권리를 主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男子는 술을 퍼 마실줄 아는 哲學이 存在한다는 것과 自己의 位置를 찾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도 있다고 한다면 썩스러운 말일까? 아니 이 世上의 歷史가 밤에 이루어지듯이 社會의 結實이 술에서 부터 始發되었다면 비뚜러진 定義일까? 夕陽과 더불어 많은 무리들이 惡의 習性을 버리지 못하고 이 대포집에서 저 대포집으로 방황하는 그 由來가 오래된 古來로부터의 遺傳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哲學이 있고, 正義가 있고 신의가 있고, 歷史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을 마치고 손을 씻으면 대포집의 유혹을 받는다. 한 哲學에(酒樂) 十年이고 二十年이고 自己를 빼앗겼다 해서 타하지도 않았으며, 또 후회하지도 않는다.

生! 그것을 흡수하고 불같이 연소시킬 核이 남아있는 날까지 지속한다면 後孫에게 對한 חות맛이 쓰리다고 할까? 그 저뿌득한 חות맛이 개운치 못해서도 대포집으로 因緣을 맺고 술을 마시게 되고 비애와 슬픔을 남게되고 核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 惡의 무리들이 太陽의 궤도를 地球가 벗어나지 않는 以上 永遠히 永遠히 살아 남을 것이고 歷史가 있을 것이라고 위로 하면서 오늘도 술을 퍼 마시고 있단다.

## 『마음의 여유』

· 崔 惠 純

(중앙도서관장 비서실 근무)

餘裕있는 生活이란 모든 面에서 풍부하고 安定된 生活을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생활을 마다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생활을 營爲하기 위하여 서로 험뜯고 미워하며 끝없는 各축전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체 어떠한 생활이 여유있는 生活일까.

여러가지로 細分할 수도 있겠으나 나는 대체로 다음 2가지 類型으로 大別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물질적으로 여유있는 生活이 그

것이다. 누구에게나 쉽게 수궁이 가는 말 일 것이다. 權力이 좋았던 社業에 成功했던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말한다.

옛날의 경우, 고래같은 기와집에 主人 집 가족보다 더 많은 머슴이나 하녀들이 시중들고, 천단위를 오르내리는 타작을 하며, 好衣好食하는 生活을 이룰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도 그 본래의 意味에는 別로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기계문명이 발달한 요지음에는 文明의 利器를 利用하여 더욱 편리한 生活을 영위하게 되었다.

個性이나 必要性은 무시된채 무조건 큰 집이면 第一이라는 式으로 설계된, 흙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멋없는 집, 실질적인 效用價値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한 몫하는 값비싼 家具와 最新 전기시설로 장치된 방들, 자가용 택시—여기에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너무나 便安한 生活을 뜻한다.

이러한 生活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폐단이 있다. 계을러지기 쉽고, 사람위에 돈이라는 썩은 思考方式으로 거만하기 일쑤이고, 만사를 금전으로 해결하려 든다. 대개의 경우 그들의 生活은 돈벌고 쓰기에 바빠 自己 自身을 돌아다 보기는 커녕 삶의 意味마저 잊은지 오래일 것이다.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났냐」라는 비난을 듣기에 마땅한 生活이다.

둘째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生活을 들 수 있다.

얼핏 듣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목숨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말이다. 더구나 實用的이고 實利的인 價値만을 추구하는 가

난한 生活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人間의 生活이 衣食住만으로 만족될 수는 없는것, 무엇으로도 代身할 수 없는 아름다운 꿈이 있고 사랑이 있다. 마음의 여유에서 꿈이 있는 생활,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자옥한 안개속을 헤매듯 모든것이 희미하기만 하여 가벼운 현기증마저 느끼게 하는 都市生活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쉽다.

급속도로 회전하는 기계문명에 휩쓸린 現代人의 生活에서는 꽃을 가꾸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정이나, 고요한 달빛 아래서 혹은 반짝이는 별빛 속에서 꿈을 키우는 한가로운 마음은 現實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 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칠대로 지친 하루의 生活을 차분히 돌아다 볼 時間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채 또 다음날을 맞는다면 우리의 삶은 딱딱한 기계의 作用일뿐, 人間다운 멋은 찾아볼 수 없는 서글픈 生活의 반복일 것이다.

인구밀도가 조밀한 都市의 공기는 신선한 산소보다는 탄산가스가 더 짙게 맴돌고 있는것 같아 숨이 막혀움을 느낀다. 거리의 소음, 밀리는 인파, 고층건물 등 살벌한 주위 환경과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매일의 사건들, 차디찬 人情, 놀라운 과학의 變化를 對할 때마다 정든 숲속에서 갓 잡혀온 아기사슴마냥 疎外된 感마저 느끼곤 한다. 생존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우리의 감정은 금방이라도 터질듯 팽팽한 고무풍선에 계속 입김을 불어넣는 것과 같

은 아찔한 자극이 없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비된 상태이며, 비비면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매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마음의 여유」란 것은 우리 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의미를 지닌다.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에게는 삶에 對한 강한 의욕이 있고,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가 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나는 무엇보다도 趣味生活을 내 세우고 싶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닌 자기 혼자만의 생활이다. 실질적인 이익추구보다는 풍부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생활이며 외면적인 멋보다는 내면적인 멋을 풍기는 생활이다. 또한 자기의 高尚한 人格을 닦을 수 있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같은 종류의 희귀한 것을 모으는 취미 독서, 운동, 산책, 음악감상, 등산, 여행 등 사람들의 취미는 다양하다.

취미생활에는 다소의 費用과 努力이 필요하다. 많은 費用을 필요로 하는 취미보다는 알뜰한 努力으로 얻어지는 趣味에 더 깊은 즐거움이 있고 싫증도 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끼는 데서 기쁨을 얻는 취미를 가져왔다.

여행이나 등산을 좋아하나 여러가지 조건에 발이 묶이곤 한다. 그러기에 수학 여행의 즐거움을 오래 잊을 수가 없다. — 고적·유물을 눈앞에 對했을 때의 감회

도 깊었지만 무엇보다도 토함山頂에서의 日出광경은 그 신비로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동해를 헤치며 불덩이 같은 해가 솟아오르던 순간이 아직 내 記憶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같이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없이 實現하기 어려운 취미 생활이 아니더라도 나는 매일매일을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정원이라기에는 너무 초라한 작은 뜰, 그러나 내 정성스런 손길을 기다리는 나 혼자만의 세계가 있다. 이른 새벽마다, 밤사이 가득 스며든 靄안 안개 사이로 화사한 얼굴을 내미는 花초앞에서 나는 純粹한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가장 보람된 삶을 느끼곤 한다.

나무가지 사이로 비치는 皎요한 달을 보며 명상에 잠기는 멋을 즐긴다.

한적한 길을 홀로 산책하는 즐거움도 맛본다.

자연을 상대로한 취미생활은 우리에게 人生을 사는 자세를 가르치며 高尚한 人格을 갖추게 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물질적 여유를 갖기에 급급하여 마음의 여유를 소홀히 하는 생활이란 향기없는 꽃처럼 허전함을 느끼게 한다.

고도로 발달된 文化를 자랑하며 부유하고 살기 편한 곳 일수록 정신병 환자나 자살자가 많다는 「아이러니」를 보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참다운 삶의 意味를 알게 될 것이다.



## 도서관과 나

金光永  
(중앙도서관 사서과)

나는 가끔 사무실이 절간처럼 조용해지면 잡념의 날개를 편다. 어디론가 향해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요란하다. 난로가에 다정하게 둘러앉아 참새모양 조잘거리는 여직원들의 소리가 들릴 뿐 참으로 고요하다. 나는 이러한 정적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다, 고독이 소리없이 밀려서 오면 싫고, 불쾌한 일이 있을 후면 좋다. 공상의 날개가 풍선모양 하늘 높이 뜰때면 남자 직업으로서의 도서관 쟁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한다. 사내대장부가 사실 고리탐탐한 사무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옛날 시어머니 모양 “피어리어드”를 찍어야 하느니 “콤마”를 찍어야 하느니 하고 잔소리를 해야하는 사서라는 직업이 남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할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서관에서 남성들의 존재는 퇴화되어가는 형편이다. 총각으로서 꽃(?)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싫지 않으나 약간 두려워 진다. 남자라는 특권 때문에 여자에게 향해야 할 상관(上官)으로 부터의 구사리(?) 조차도 도맡아 맡아야 하기 때문이리라.

불교에서는 옷소매가 스쳐가도 인연이라고 한다. 좋게 표현해서 “깨끗한” 나쁘게 말해서 “부수입 없는”도서관과 인연을 맺게된 동기는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성격조차도 사회에 적응하기에 적합치 못했고, 그렇다고 취직이 그리 용이

하지 않아서 “즐거움”이 아니라 “서글픈”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취직이 잘 된다는 사서교육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철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교육원에 입학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된 것은 교육원에서 서지학 강의를 듣는 麟선생님이 담당하셨는데, 아마도 학기말 시험이 있을 무렵이었으리라. 그당시 수업시간에 시험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古書의 裝釘과 版心에 對하여”라는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출제해 줄것을 원했으나, 학과 점수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관계도 있고 “영웅심”이 작용해서 소위 어렵다는 문제를 출제해 줄것을 제의해서 동급생들에게 약간의 미움을 받았으나, 이 일을 계기로 古書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오게 되었다.

내가 도서관에 들어온 것은 작년, 노란 개나리가 필 무렵 3월이었다. 그 당시 도서관에 비하면 현재의 도서관은 뛰어난 개선이 있었다.

사회계 첫 발을 내 디딘 노오란 병아리였던 나에게 그당시의 도서관은 무엇을 안겨 주었던가?

병아리 시절의 식목일, 출근하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집을 나왔다. 기분이 상쾌하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나는 출근길에서 같은 아가씨들을 만날 수 있기에 더욱 좋다. 아침마다 만나는 아가씨들—어떤 아가씨는 무안할 정도로 쳐다보고, 어떤 아가씨는 일부러 모른척하고 지나가

버린다. 서울역에서 낮익은 사람들과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고 같은 코스를 달린다. 퇴계로를 지나 혜화동으로 오는 아스팔트길은 참 멋있다. 가로수가 있어서 더욱 그런가 보다.

도서관 옆으로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개천이 흐르고 있다. 개천가 잔디밭에는 봄이면 노오란 개나리, 여름에는 빨간 사르비아, 가을이면 하얀, 빨강, 분홍빛 코스모스,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핀다. 개천가에 가끔 비둘기가 쉬었다 가듯이 나는 점심시간이면 으례이 개천가 잔디밭으로 간다. 이 개천가 잔디밭에 나무를 심기위해 삽자루를 손에 잡았을때 야릇한 감정에 사로 잡혔다. 창경원 구경은 시골 국민학교 학생의 감정 같았다. 그만큼 답답한 도시생활로 삽과의 거리가 멀었었나 보다.

이와같이 식목을 했었지만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월급에서 일당 170원을 공제했었다. 나는 도서관옆에 나무를 심고 도서관은 나의 마음에 임시직원의 고통이라는 나무를 심었다.

지난 2년 동안의 실무에 비추어 도서관에 있어서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

교육원에서 資料選擇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대로 말하자면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 도서 선택의 원칙을 세워서 선택의 참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함과 동시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에 의하여 도서를 평가하고 도서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도구의 체크와 서평 쪽지를 작성해서 학생, 교수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줄로 생각을 했으나 어린 병아리

의 눈에 비친 현실적 도서구입 방법은 달랐다.

또 하나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사서의 역할이 書庫를 지키는 행정적인 임무에 불과한 것인가 하고 의아해 했다. 사서의 임무는 웃는 얼굴로 웃음담긴 목소리로 도서관의 이용자에게 봉사적 정신을 발휘해서 책에 대한 의욕을 불려 일으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이론과 현실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 할수는 있으나, 도서관에 관한한 이론이란 현실의 실무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요, 현실적인 실무는 이론에 적응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 눈 (眼)

朴 鍾 根

(중앙도서관 사서과)

누구나, 무엇이든 동물이라면 눈은 다 가지고 있다. 눈이 우리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보배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몸소 당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실제만큼의 고마움을 우리는 결코 느끼지 못한다. 그건 동물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닭을 보면 그것은 꼭 보이는 쪽으로만 몸을 움직임을 곧 알수 있다. 그 닭은 말은 못해도 한없이 서러울 것이다. 비록 동물이라지만 그 고통과 불편을 생각해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불구자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서러운건 역시 장님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묘하기도 하다. 수많은 자동차, 사람들이 정신 못차리게 빈번히 왕래하는 번화가에서도 까만 안경을 쓰고 통통한 지팽이를 쥔채 그 복잡한 뻘컘의 행선지를 感知하고 매달리는 걸 보면 열려스러우면서도 기이함을 금치 못한다.

하여간 우리 사람은 목숨만 붙어 있으면 어찌됐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보다 하고 모진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본다. 아마 장님에게 잘 때는 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낮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온 종일 아니 영원한 밤의 연속일런지도 모른다. 어찌면 눈은 밤과 낮의 啓示者나 決定權者 일런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보일 수 있다는 교마음이 너무도 너무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엄마의 사랑처럼 그걸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새삼스리 내가 볼 수 있다는 행운을, 이 영광을 뉘게라도 베풀고 풍겨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본다」는 물리학적인 면에서의 그 눈들은 그 기능이 거의 다 같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 시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지만 단순한 “봄”(視)에 나아가서 그걸 분석해 보면 그것들은 천태만상인 온 세상의 유형, 무형의 사물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심지어 언어의 代役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

나는 가만히 보는 눈과 보이는 눈,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는가와 무엇이 보이는가를 생각해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고 自笑를

금할수 없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나는 눈이 무엇을 보는가고 생각해 본다.

이발관에 가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머리를 세발하러 감이 통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발관 문이 열리면 그안의 온시선이 집중된다. 이용자들은 우선 머리를 보고 머리를 세발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各各 自判한다. 만일 머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무관심하거나 의아케 여김을 우리는 곧 느낄 수가 있다. 난 이발관에 갈때마다 꼭 그런일을 느낀다.

또한 다방이나 거리에는 많은 구두당은 소년들이 있다. 그들은 항상 행인들의 구두에만 시선을 쏘지 그외 타것에는 거의 무관심하기만 하다. 언젠가 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어느 다방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저 정신없이 손님들의 구두만 보고 다니는 애가 있었다.

가까이서 “신 닦어요?”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는 무심코 내미는 스리퍼와 바꾸어 신었다. 얼마후에 번득거리는 내 신발이 돌아왔다. 거스름 돈을 받을때 보니 그랜 전에 자주 내 신발을 닦던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다. 결국 그애는 구두만 보았지 내 얼굴은 보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이런것들은 자기들의 직업의 식에서 오는 하나의 생활버릇 이겠지만 내머리나 내구두에 시선을 받을땐 난 항상 이상한 생각이 든다.

택시 운전사의 눈을 생각하면 또 웃읍다. 그들은 질주하면서도 인도에 서있는 사람이 자기 손님인가 아닌가를 재빨리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곧장 와서 서는 눈의 재

치! 과연 알아줄만한 습씨이다. 때로는 길 건너편의 친구를 부르는 손짓에 빼יק 하고 다가서는 택시에 미안감을 갖게하는 실수도 있긴 하지만 그들은 참 귀신 같이도 잘 보고 다닌다. 또 쓰리꾼의 눈은 무엇을 그리도 예리하게 주시할까? 아마 쓰리당할 사람과 주위의 눈초리 그리고 그 목적물 이겠지.

이러한 일들은 정말 얼마든지 생각해 볼수 있는 일들이다. 심지어 “개눈에는 X만 보인다”라는 말이 나올만큼 어떤 눈들은 무서우면서도 당연스럽게 보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기의 경우와 個性다운 세계를 찾는 한 작용들인 것이다. 밤거리의 자동차의 눈은 운전사의 눈을 통해서 노상 장애물들을 식별해 준다. 아마 내리는 “눈(雪)”의 눈(眼)은 자기가 내릴곳을 가려 내리는지도 몰라. 역시 눈은 “보는것”인가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보는 눈에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나의 눈에 대한 신비는 곧 여기에서 느끼는지도 몰라, 그것은 無窮한 思念의 保庫이다. 거지의 눈은 배고픔과 체념을 보여준다. 더구나 겨울엔 “추움”까지 보여준다.

삐쓰안에서 서툰 한가락의 유행가를 마친 피죤손을 내미는 교아의 처량한 눈은 자기절을 받는 승객들의 눈을 살피며, 돈을 꺼내는 승객의 호주머니 입구만을 주시하며 “꼭 주셔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주셔요” 하는것을 말해준다. 그 눈이 보이는 말의 초조는 입후보자의 개표시간의 귀 바로 그것이라.

손자를 안은 할머니의 눈에서는 “내 귀여운 강아지야, 복되거라”라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며, 155 마일 전선의 장병

들의 긴장된 눈에서는 “이놈들 넘어 오기만 해봐라 당장”하는 웨침을 들을 수 있다.

난 가끔 거울속에 나를 담그고 한참동안이나 눈싸움을 하기도 한다. 내눈은 어떤 면에서는 무엇인가를 속속드리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의 유능한 투시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어떤 눈에서는 도저히 무얼 말해주며 무엇을 내게 보여주는가를 판단 할수가 없다. 그 어떤 눈이 아마 자기를 은폐해서 그러는 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해 본다. 위조지폐를 식별하는 은행가의 예리한 눈을, 집도한 의사의 치밀하고도 총명한 눈망울에 비한다면 내눈은 천사의 껌뻌한 사랑을 어루만지는 순결한 눈망울이라고나 할까? 내눈이 태교의 교요에서 열릴때 많은 눈들은 어느새 소음을 記憶시키며 때로는 곧 날이 밝아 올텐데도 밤으로 위장하고 년지시 건너보는 기교를 부린다. 이런때면 내눈은 참을수 없는 회의와 분노, 自重과 현실이 내 뇌리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는지도 모른다. 모질게 자란 나무는 보다 질기다고 知와 金은 내게 말해 주었다. 사실 난 이것을 내눈을 통해서 광고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색안경을 쓰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내눈으로 많은 호흡을 들었으며 많은 비밀도 보아왔다. 그것이 진실이던 아니던 간에 말이다. 나의 가슴이 저리도록 안타까운 그리움이 내 뇌리에 응덩이를 봤을때 희열과 냉엄의 갈등은 허전을 치솟아 고이게 한다. 난 그걸 감추려 안경을 쓴다.

다른 눈에서 무엇을 보며 내눈에서 무엇이 보여지는가를 생각함은 그것이 값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나 보는 눈과 보이는 눈을 한번쯤은 생각해 봄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눈은 오묘한 투시경이며 반사경이기 때문에.

## 사랑의 斷想

장 금 환

(치과대학 도서관)

언젠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 어느 女人으로부터 전해진 편지를 읽어준 일이 있었다. 그 女人은 꽤든 나이였나본데 편지글 대신 자기나름의 詩를 정성껏 써 보낸 것이었다. 그렇게 탐탁스러울 만큼은 못되었지만 아무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詩人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나보다 하고 會心의 微笑를 머금었다. 사랑하는 가슴은 봄여울의 실비단같은 시냇물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슬에 玲瓏하는 아침 햇살에 喜悅을 滿喫하며, 생그러운 아까시아 꽃향기에 陶醉되고, 한 여름 천사같은 면화송이 구름과 對話하며, 호수같이 깊고 포도알같이 투명하기만한 가을 하늘을 가슴에 담고, 낭만에 스러지는 낙엽의 音律을 음미해 보는 것이다. 사람의 感情이야말로 人間性을 가장 스무스하고 淨化된 涅槃의 세계로 融化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聖書에서는 사랑을 다음과 같은 筆致로 描寫하고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溫柔하며, 猜忌하지 아니하며, 驕慢하지 아니하며, 無禮히 分치 아니하며

自己의 有益을 求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惡한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不義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眞理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것을 참으며, 모든것을 信義로 믿으며, 모든것을 바라느니라」 또 미국의 文豪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사랑은 人間과 宇宙의 創造者다. 사랑은 存在의 極點이며, 人間關係의 根源이고, 人間의 要素이며, 友情의 礎石이며, 살아 있는 宗教」라고 表現하고 있다. 現代人은 과연 어떠한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사랑의 正確한 正體를 찾아 본다는 것은 累를 犯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사랑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自體이니까, 하지만 現代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概念을 알기 전에 結婚이라는 것을 彼岸으로 돌려버린 사랑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實存的 人間을 어느 틈엔가 「人生 (Enjoyment)」이라는 公式을 받아 드렸고, 이 公式에 依하여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사랑이 엔조이를 위한 手段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사랑은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높고 넓다고 하잖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 주는 기쁨, 그것은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으리라. 사랑은 自己否定이며, 自己犧牲이다. 「나」를 否定하고 「너」를 肯定함이며, 그 속에서 다시 「나」를 찾는 것이다. 「너」와 「나」가 統一의 調話로써 「하나」로 되는 것이 사랑의 本質이 아닐까? 사랑하는 戀人들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性向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데에는 그만한

苦痛的 쓰라린 試練이 또 정성된 끊임없는 努力이 필요하다는 것을 忘覺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같이 있고만 싶어하지 「하나」로의 完成을 위한 努力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意味에서 첫 사랑의 戀人을 한평생 사랑하며 삶을 누리 는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完成을 이루는 幸福한 사람일것이다. 사랑은 眞實과 眞實의 對話다. 거짓없는 人格과 人格의 어울림이며, 꾸밈없는 生命과 生命의 사귀임이다. 眞實이기 때문에 서로 믿음이며, 所望인 것이며, 진정 宗教일 수가 있는 것이다. 「제롬프, 우리가 人生을 함께 걸어가다가 당신이 疲倦할 뻔 내 어깨에 기대세요」 이것은 앙드레지이드의 「좁은門」에 그려진 사랑의 이메지다.

사랑은 황홀한 幸福感만을 가져다 주는 달콤한 것으로 想像되기 쉽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피로움에 몸부림치고 悲哀에 젖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야말로 피로운 人生의 지친 삶을 慰勞하며 새로운 生命力을 불어넣어 주는 原動力인 것이다. 나는 참을 사랑하고, 眞實을 사랑한다. 참으로 거짓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 거짓으로 충만된 娼婆의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마다 거짓된 僞裝으로 비치일 때의 人生을 想像해 보라. 나는 또한 착한 마음씨를 사랑한다. 우리 주위에는 美貌는 갖고 있으면서도 곱지 못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善은 恒常 아름다움을 隨伴할 수 있지만 美가 恒常 善을 同伴한다고는 斷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짓이 없는 맑고 뚜렷한 눈을 가진 女人! 푸른 가을 하늘 같은 맑은 얼굴의 女人을 사랑하고 싶다. 내 情熱과 내 온갖 精

誠을 다하여서 말이다.

## 12월의 단상

조 태 곤  
(중앙도서관 사서과)

12월은 가는데 어처구니 없는 기분은 무언가 서운한 맛이 감도는 듯하다. 이곳에서 내가 벌써 두해를 맞 보았지만, 머리에 남는 것은 다만 어처구니 없다는 것뿐이다. 어느 직장이나 다 한가지겠으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의 일과가 일년에 해당하는가도 모른다. 부시시 눈을 뜨면 7시를 바늘이 넘고있다. 부랴 부랴 이부자리를 걸어차고 일어나면 세수는 약식으로 얼버무리고 나서 조반을 재촉하면 으레히 식사와 양말은 겸해서 행동한다. 정신없이 나오다 보면 양복 단추는 정류장에 와서야 완료된다. 시계를 한번 본다. 시간은 많지않으나 빠스는 빠스가 아니고 숙주나물 시루다. 이미 마음에 각오는 섰다. 필사의 기력으로 오르면 차장이 밀어대는 힘이란 레스링 선수 이유가 아니다. 혼드는 차속, 봄비는 틈에서 정신은 그대로 송장과 같으니 어데쯤 왔는지는 알수도 없으며 손님이 타고 내리는 곳에 횡수로서 만이 내가 내릴 곳을 찾아 내리면 제일 먼저 눈이 가는것은 구두, 마음먹고 닦은 구두값 20원이 송두리채 손해다. 숙녀라면 스타킹값이 곱할 수 있겠지.

그런대로 마음먹고 흐르는 나일강 유

역(대학천)을 연상하며 걸어와 정문을 들어서면 우뚝한 탑시계는 무사태평으로 어제 퇴근때 시간에서 그대로 잠을 주무시고 있다. 남들이 보는데는 으젓한 정문으로 발길을 향하니 부러울까다. 허지만 그 많은 건물 중에서 내가 갈곳은 아니! 나의 발걸음이 보이는 곳은 몇십년 때로 옷입은 부속도서관, 어둑 어둑하고 침침한 문으로 비추는 형광등이 오히려 밝다. 마치 들어설때의 기분은 이상하지만 나의 직강임을 느끼면 든든해 진다.

그렇다. 그러한 속을 들어서서도 나는 또 들어 가야만이 내가 일하는 곳이며, 게다가 나의 방은 다른곳보다도 30cm 나 더 깊은 지하실 남이 들으면 조용하고 좋겠다고 생각 할까 모르나 사실과는 다르다. 들려오는 차 소리는 어쩔수 없다지만 월동준비의 선봉인 스팀은 왜 그렇게도 냄새를 풍기며 소리는 사무실을 울리며 들려 오는지 기분은 벌써부터 개운치 않다. 나도 학창시절이나 사춘기 시절에는 곧잘 감상도 해왔고 하는척 했으며 책이라면 남이 버리는 책도 나의 소관이 되면 좋았고 즐거웠다. 그러던 내가 막상 이곳에 와 일하면서 보니 쌓인 것이 책이요 보이느니 책이다. 간혹 보고싶기라도 한 책은 있지만 사무정리에 쫓기다 보면 내가 얻는 실력에 소산은 내용이 아니고 값이다. 이 책은 얼마저 책은 얼마라고 말이다. 그런가 하면 2층에 올라가는 열람실 복도를 지나보면 침침한 속으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가 다름 아닌 교서 뭉치나 아니면 서고로 들어가서 언제나 태양을 맛 볼까도 모르는 기약없는 도서들의 행렬에 북추력 소리가 뿜들어 대지만 그 추력 역시 팔 물건이

아닐수 없다. 다 쓰러져가는 몸체에 많은 도서가 누르고 있으니, 어쨌든 그러노라면 시간은 12시를 육박해 가고 있다. 그러면 머리는 잠시 어지럽다. 오늘은 과연 무슨 음식으로 채울까가 아니라 점점 많아져가는 식당 전포에 신경이 쓰이면 얼마짜리로 배를 채우느냐는데 정신은 모아진다.

그런 생각으로 발길이 식당에 닿으면 이전 마치 노가다(?)판에 온 기분이랄까? 도사 모르겠다.

나는 사무적인 분장으로 봐서도 학생들과의 접촉은 많지 않다. 그러니 학생들의 시험일시는 더욱 묘연하다. 그러나 기탁한 사실이 나를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열람실을 돌아보면 불비는 때가 있다. 평시에는 물론 그렇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머리수보다 직원의 수가 많을때가 적지 않게 있으니 말이다. 그런가하면 초상집을 다녀왔는지 몇시간을 잠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허긴 나도 책만 들면 곧잘 즐기는 했지만,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요,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기관이니만치 우리로서의 할일은 해야 하기에 분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처럼 분주한 생활이나 봉급날은 멀기도 하고 역시 닥아와 보면 뭐 그리 신통치를 않다. 차라리 10원짜리로나 받으면 두둑한 맛이랄까 있을까? 봉투를 받으면 보이지 않는 사연의 열매는 주렁 주렁 하다. 축의, 조의, 식당, 외상, 등등의 사연,

그러니 금년을 보내면서도 어처구니 없다는 사실만이 나의 뇌리를 장식하고 있으나 그도 조용한 저녁에 밤의 관장(속

적)이 되면 꼼꼼한 생각은 그칠 줄 모른다. 따뜻한 아랫목에 발을 묻고 있으면 전신에 온기는 젖어 오르나 뒤미처 엄습하는 탄카스에 혼미함을 느껴 밖으로 나서려면 풀썩거리는 이불 내음이 달갑지가 않다.

일소하고, 그래도 책임이 중하니 쥐가 뜯는 소리에도 정신은 끈두신다.

많이 남지도 않은 금년이지만 학생들이 시험기가 되서인지 오늘도 열람실은 붐비고 있으나 저무는 금년을 지켜보며 비슷이 누워 혼잣말로 중얼 거린다. 어처구니없는 금년은 가지만 나의 밥줄이여 내년은 굶어 지려느냐? 들리지않는 부르짖음에도 아랑곳없이 찾아오는 잠에는 당할 도리 없구나!

## 人生 = (悲)<sup>2</sup>

조 대 원  
(문리대 도서관)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교장선생님의 훈사가운데 나는 이러한 말을 들었다. “평범한 위인이 되라”.

이 말은 “평범한 상식인과도 통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즉 다분히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삶에 충실하라는 말이겠다.

진실한 상식인은 천재도 백치도 아니어야 한다.

막 말로 어중중한 보통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표준지력을 가지고 이해력, 판단력 따위가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말이겠다.

오늘 사회는 이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요구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피역을 좋아한다. 평범보다는 비범, 즉 비상식적인 데에서 멋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비정과 무가치와 방황을 즐겨 말하는 모양이다.

두어달 전 친구와같이 집 근처인 마포한강에 뽀드 놀이를 간 적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내가 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일을 보고 말았다.

누이와 같이 놀러 온 한 소년이 하수도 배수구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하수구 급류에 말려 떠내려 가고 있었다.

그의 누이는 말할 것도 없이 주위 사람들은 모두 발을 동동 굴으며 애타계 그러한 상황을 지켜 볼 뿐이었다. 그 곳에는 경찰 구조정도 없었고 단지 뱃 사공들 몇 사람 뿐 그를 구조해 낼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 소년의 누이는 뱃 사람들을 붙잡고 전혀 달라 애원을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테니 전혀 달라니 돈을 손에 쥐어 줘야 물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다.

끝내, 그 소년을 경찰들이 건졌을 때에는 이미 숨이 끊긴 후이었다.

나는 골이 빠게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그 뱃 사람들을 욕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들도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버티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이 불신의 세상과 인잡



부재의 사회 구조가 더 저주스러웠다.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며 부조리한 인간부재의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래도 더 살아야 하느냐? 하는 자탄뿐이었다.

오늘 세상은 말이 많고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고갈되었다고 느꼈다. 대화의 부재, 인간성의 결여, 이러한 것들을 그 뱃 사람들은 실로 더 높은 의미에서 빠져리게 나보다 느낀 모양이다. 오래전 어느 삼류극장에서 본 續 몬도가네,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었다.

일곱 사람이 실로폰이 되는 인간의 비애를 읽으면서, 박수 갈채를 보내는 현대인의 심리를 헤아리면서 한 동안 앉아 있었다. 분명히, 거기에는 평범이 없었다. 도리어 그러한 상식인을 경멸하는 모습과 인간의 개성을 비정상적으로 착각하는 난무가 있을 뿐이었다.

오늘은 보통과 비보통이 혼돈된 시대인지도 모르겠다.

이리하여 “가치평가의 전환”은 또다시 시작되는가 보다.

續 몬도가네가 아니라, 또다시 몬도가네는 반복되는가 싶다.

나는 이 영화의 제목을 人生=(悲)<sup>2</sup>이라 부치고 싶다.

## 敎職과 賤職

金 基 泰

(약대 도서관)

나는 어린 시절에 스승을 몹시 존경하고 따랐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어

진 사람으로 스승은 모르는 것이 없고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 人間으로, 스승은 나의 어린시절의 「이미지」(image)의 대상으로 자라고 있었다.

옛날에는 스승은 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라 하여 임금, 스승, 아버지는 중요한 점에 있어서 비슷하다고 하여 존경하였고 또한 공자님의 三樂(삼락) 가운데에도 천하의 영재(英才)를 얻어서 교육하는 일이 참다운 낙이라 했기에 聖職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한때 敎育者가 되고 싶어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때문인지 나는 사범학교를 나와 20대의 젊은 나이로 교단에서 아동들을 가르쳤으며 졸업식 같은 때 「우러러 보면 고귀한 스승의 恩惠!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소리 높여 외우고 있었기에 敎職은 天職으로 알고 또 가르쳤다. 그러하던 나의 敎職에의 관념이 차츰 賤職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교사의 사태만은 아니리라, 이것 저것 할 것 없으니 선생질이나 해 먹자 하는 태도에서 만도 아니리라.

오늘날의 敎職의 관념은 어떠한지, 교사란 고리 타분하고 궁색한 職業人의 대명사 짬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으며 子女 가운데 敎師 지망자가 나오거나 혼담(婚談)이라도 나오면 世上의 어버니들은 이런 말을 한다. 「訓長의 X은 X개도 안 먹고 쓸개는 호랑이도 안 먹는 단다」 이런 식이며 우리 민요에 나오는 「결감투」란 말은 이와같은 歪曲된 교사관의 표본이라고 생각된다. 그 얘기 인즉 옛날 하느님이 세상에서 가장 떠분하고 불쌍한 세

사람을 골라 감투 셋을 분배키로 했는데 첫감투는 訓長에게, 두번째 감투는 靑신 장수가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하나를 들고 아무리 찾아 다녀도 줄 만한 사람이 없어 「엿다! 이감투 마저 걸쳐 가져라 하여 訓長에게는 두개의 감투를 주어 버렸다는 얘기가.

민주주의 스승 「링크」이 갈파한 바와 같이 세상에 賦職이란 있을수 없고 오직 賤人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教師가 賤人이 아닌거와 마찬가지로 교직은 賤職이 아니라고……그러나 敎職도 하나의 職業人 입에는 틀림이 없다. 물건을 다루는 직업인이 아니라 生命을 다루는 職業人인 것이다. 그러기에 신성하고 고귀하다.

교직이 천직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바꾸워 지지 않는한 사회의 정화나 발달은 영원히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 스슬렸든 출장여행

윤 영 자  
(행정대학원 도서관)

몇달 전 제주도 출장을 갔다 온 일이 있다. 하긴 출장이라면 마치 상관들만의 전용물 같이 생각되든 차 말단직원인 내가 가겠다고 나섰으니 어찌면 가소로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소관사무가 내 것이고 보니 출장은 내가 갈수 밖에 없었다. 勿論 순수한 호의에 의한 출장허가가 내렸다. 그러나 출장허가 만으로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럴것이 출장비가 어데서인가 걸려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아니 걸렸다는 것 보다는 딱 막혀 좀처럼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

5월 21일 일행 일곱명중 나를 제외한 여섯명이 떠났다. 23일부터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선 目的地가 제주도였기 때문에 이틀을 앞당겨 가야만 했었다. 난 혼자 남은 것이었다. 제주도까지 水路와 육로를 합해 이천여리길을 혼자 가야만 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런 것쯤은 나에게 고통이 됐을리 없다. 더구나 여행이란 여럿이 떠들고 가는 것보다는 혼자 조용이 가는것이 정신的인 부담도 안느끼고, 또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다행스럽게만 생각되었든 것이다. 그러나 일행이 떠나버린 다음날도 나의 출장비에 대해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서둘러 만큼 출장에 열이 빠져 있지도 않았다. 氣分이 유쾌할 理는 없었지만 태연하게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담당자도 아닌 K씨로 부터의 극히 애매한 전화였다. 나는 알겠다는 대답을 한후 여전히 삼층에있는 내 사무실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내 출장비가 나온 것은 오후 한시도 훨씬 지나서였다. 그러나 이만 때면 벌써 기차표는 다 팔리는 것이 통례이었고, 또 그날도 예외없이 그랬든 것이다. 난 이 가소로운 현실을 뼈속깊이 느끼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삼층 난간에서 B선생님을 만났다.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래 난 몇마디 대답을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

나 그로부터 한시간 후 B선생님의 주선으로 경부선행 기차표 한장이 내 사무실이 아닌 교무과까지 배달되었다. 허나 이미 會議 첫날이 他意에 依해 포기된 지금 난 어차피 맥빠진 출장을 가야 하는 어슬픈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난 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여덟시 서울역을 떠나는 한주먹 내 머리속은 한없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 게다가 기차편만으로 그치는것이 아니었다. 기차에서 내리자 곧 배를 바꿔타고 열두시간 동안의 밤중 항해를 해야하는 고된 길이었다. 그러나 내 목적을 달성하기 爲해서라면 그정도의 고통쯤 얼마든지 극복할 용의가 있었다.

그저 한가지 생각하고 싶었던 일이 있

었다면, 무엇때문에 지금 난 이렇게 혼자 가고 있으며, 또 이 뒤늦은 출발은 정말 불가피했든 것이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허나 그런건 알 必要도 생각할 必要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내가 살고있는 곳은 社會였기 때문이다. 社會란 싸워서 이기지 않는 한 발부칠 곳이 없는 절박한 싸움터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이 지나면 아침은 반드시 오기 마련인 것이었다. 이때 잠시나마 불쾌했던 지난 며칠동안의 일들을 털어버리고 멀리 멀리 서울을 떠나고 있는 나의 차창엔 짙은 아침 안개가 마치 요원의 불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으며, 특급열차의 통쾌한 기적소리가 희미한 나의 의식속을 깊이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다.